말뿐인 '실버존' 무용지물 전락 우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으로는 미흡

변으로만 지정하다보니 정작 노인 통행이

빈번한 도로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우선, 실버존을 노인보호·복지 시설 주

하다는 지적이 많다.

〈노인보하구열

#.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광산노인복지관 앞 도로. 왕복 7차선 도로는 지난 2008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한속도 50㎞'를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차량들은 도로에 적힌 '노인 보호'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제한속도를 무시하며 지나갔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는 보이지 않았고 복지관을 나선 노인들은 '불안한' 노인보호구역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광주·전남 58곳 지정…노인 통행 빈번한 곳 제외 안전시설 미흡…제한 속도 지키는 차량 드물어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도 안보여 '불안한 발걸음'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제가 무용지 물로 전략하고 있다. 복지시설 등 노인 통 행이 많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 해 도입된 제도지만 관계 당국과 운전자들 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이달 들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대폭 강화 됐지만 노인 교통 사고 우려가 높은 도 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정되는가 하면, 운전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되는 형 편이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광주시 광산구 노인복지관 앞길 등 43곳을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 버존'으로 지정하고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 운영중이다.

실버존은 노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운전자의 경우 시속 30km 또는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지자체도 과속방지턱 등안전시설을 갖추게 돼 있다.

이달부터는 처벌 수위를 높여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 과태료 또는 범칙금,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 차 차량의 경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범칙 금을 내야 하고 신호·지시 위반 차량은 12 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 수위만 높였을 뿐 실질적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사고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반경 200m 이내 65세 이상 보행자 사고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13년 노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지역은 양동시장, 대인시장, 말바우시장, 광산구 송정 5일시장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는 형편으로, 그나 마 노인들이 즐겨 찾는 공원도 송산유원 지, 쌍학·푸름공원 등 3곳 일대만 실버존 으로 지정됐을 뿐이다.

또 43곳 중 30곳의 실버존만 붉은색 아스팔트 노면으로 포장, 운전자가 충 분히 식별이 가능하게 했을 뿐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남은 더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 령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지 만 22개 시·군에 설치된 '실버존'은 고작 7 개 시·군 15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나주 (복지회관)·고흥(노인복지타운)·목포(하 당복지회관) 등을 제외하면 과속방지턱, 적색포장 등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는 등 무관심해 말뿐인 실버존이라는 지적이 나 오다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한 횡단보도 보행 시간 연장 조치 등도 미흡하다.

광주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 시간을 1초당 1m에서 0.8m로 늘린 곳은 15개소에 그치고 있다.

박정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교수는 "노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아닌 복지·거주 시설 주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3년 937명(사망 119명·부상 818명), 지난해 852명(사망 99명·부상 753명)으로 집계됐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산노인복지관 앞 도로 위로 노인 2명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바닥엔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희미해진 상태로, 지나는 차들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노인들을 지나쳐 가고 있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부품파손' 호남선 KTX 또 지연 운행…승객 불편 가 열린 채 운행하다가 승강장에 도달하

개통 첫날 '청테이프' 땜질 운행으로 빈 축을 샀던 호남선 KTX가 2일 또다시 부 품 이상으로 지연 운행했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50분께 천안·아산역에서 KTX-산천 505 호 열차(서울 용산~목포행)의 외부 덮개

第204个展现在学习整个的人们也会在美国的问题,我是就对于全国的。10

(가로 2m·세로 60cm)가 파손돼 열려있는 것을 열차팀장이 발견했다.

코레일은 다음 역인 오송역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76명은 일반KTX로 갈아타면서 종착역인 목포 역에 16분 늦게 도착하는 등 불편을 겪었

다

사고가 난 열차는 정비를 받고 다음날

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비상용 사다리를 보 관하는 공간의 덮개 하부에서 외부 충격

흔적(50mm)이 발견됐다"며 "천안·아산역

가 열린 채 운행하다가 승강장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모서리에 다시 부딪혀 파손된 것 같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ィ 고 자고 원인들 걸렁껐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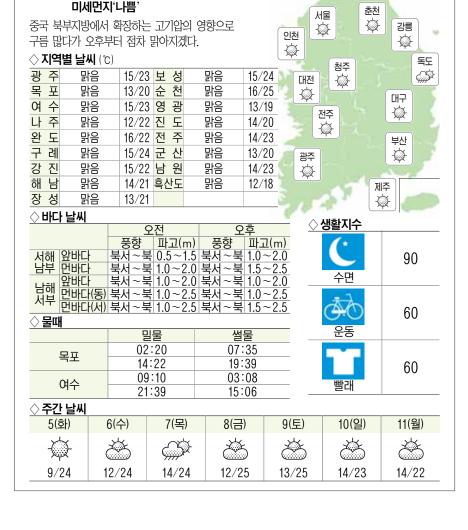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을 하고 있다. 바닥엔 | 속도를 줄이지 않고 | oxer@kwangju.co.kr

광주 롯데백화점 정전사고단돼 관람객이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영화 상영 중단 항의 소동백화점 측은 "정전 사고 뒤 대응 매뉴

백화점 측은 "정전 사고 뒤 대응 매뉴 얼에 따라 정전 안내방송을 하고 자체 시설팀을 투입, 15분 만에 복구를 완료 했다"면서 "영화 관람객에 대한 환불 조 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도 했나"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KT사옥 변압 기 합선으로 인해 한전 주 변압기 전원 공급장치가 자동 차단된 것"을 정전 원 인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정전 사고 발 생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덧붙였 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05:39

19:20

19:27

05:44

신안 흑산도서 미기록종 철새 '노랑배솔새' 발견

신안 흑산도에서 국내 미기록종 철새인 노랑배솔새(가칭·사진)가 처음으로 발견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신안군 흑산도 에서 지난달 19일 노랑배솔새 1마리를 국 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늘의 날씨

노랑배솔새는 휘파람새과 솔새 속에 속하는 작은 조류로 중국 동남부, 베트 남, 라오스 일부 지역에서 분포한다.

공단은 흑산도 배낭기미 습지에서 조류의 이동경로 연구를 위한 가락지 부착조사를 하던 중 노랑배솔새 1마리를 확인하고 이 새의 발목에 가락지를 부착했다.

이번에 발견된 노랑배솔새는 이동 중 길을 잃었거나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확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정전 사고가 발

생, 영화를 보던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

다.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

난 1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갑자기 전원 공급이 끊기면

서 백화점 9층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이날 정전으로 승강기 8곳이 순간 멈

취서면서 퇴근길 직원들이 갇혔다가 구

조되는가 하면, 영화 상영이 15분간 중



장되면서 흑산도까지 날아온 것으로 보 인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흑산도 일대는 동남아 일대에서 여름을 나기 위해 북상했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매년 250여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 – 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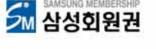
062)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 사 부 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 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 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 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 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VAT포함 금액입니다.

[☑ⓒ 에스골프

한진관광(타워펠리스점)



http://tp.kal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